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법기회 수행법

- 1. 중생의 속성을 여래의 속성으로
- 2. 관법-염법-의심법
- 3. 수행의 단계

단계에 알맞는 수행을 강조

법기회는 공부의 정진결과에 따른 수행의 단계를 수다원과(공부의 어목동정일여)-사다합과(숙면일여 단계)-아나합과(세번뇌의 평정)-유여열반(有餘涅槃)의 아라한과-무여열반의 아라한과 등으로 구분한다.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는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여러 곳에 수행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단계에 알맞는 수행이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다원과

어목동정·꿈속서도 일어 중생의 흐름 거슬러 '역류'

입류(入流) 또는 역류(逆流)라고 번역하는 수다원과(수다원)는 어목동정간이나 몽중에도 삼매와 삼매관성이 이어지는 수행단계를 말한다. 이 수행단계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입류'라 하며 중생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하여 '역류'라고도 한다. 수다원과의 의식이 있는 때는 공부가 거의 완벽하게 이어지는 수행과위(位)이다. 이러한 수행자가 삼매에서 경계를 접하게 되면 삼매관성 상태에서 경계에 대응하다가 그 경계가 끝나면 순간적으로 무기에 빠졌다가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즉, 삼매관성이 끝나는 즉시 삼매에 들지 못하고 삼매관성이 끝날 때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서야 삼매에 들게 되는 수행단계이다.

사다합과

깊은 잠속 삼매상태 지속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

숙면시에도 수행이 한결같아지는 수행단계인 사다합과는 일왕래(一往來)라고 번역한다. 수행자가 수행방편의 삼매와 삼매관성이 어목동정간에 일어나고 몽중에도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깊은 잠 속에서도 삼매가 한결같이 이어지는데 이를 숙면일여(熟眠一如)라고 한다. 사다합과위는 수행자가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고비인데 이는 호흡으로써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다원과의 수행자가 호흡에 수행방편을 결부시켜 항상 정진차림을 유지하게 되면 삼매관성이 끝날 때 무기에 빠지지 않고 바로 삼매에 들게 되어 사다합과에 이르게 된다.

사다합과는 삼매상태에서 갑작스런 경계(갑자기 벼락이 치는 때 등)를 접하게 되면 삼매가 순간적으로 깨어져 무기에 빠진 다음에 그 경계가 번뇌로 생지미멸을 거친 후에 삼매관성이 붙어주게 된다. 즉, 사다합과에 이른 수행자는 갑작스런 경계를 접하게 되면 삼매관성이 시작되기 전에 삼매관성이 붙어주지 않는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다합과는 갑작스런 경계에 접하면 삼매관성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경계가 순간적으로 번뇌가 되는데 이를 세번뇌라 한다. 사다합과 이전의 수행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와같이 잘라간에 경계가 번뇌가 되지만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 세번뇌는 잘라간에 무기에 한번 빠졌다가 한 번뇌만 일어나는 수행단계이므로 이를 일왕래라고 한다.

"금강경은 무여열반 이끄는 법문"

법기회 강정진법사

"《금강경》은 유여열반 아라한을 무여열반 아라한으로 이끄는 법문입니다."

현재 《금강경》 해석서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법기회 강정진(69) 지도법사는 "《금강경》의 수자독송이란 다른 아닌 부처의 일상사인 무념과 반야의 구사"라며, "기존의 금강경 해석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논리정연하고도 명쾌한 설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법사에 따르면 유여열반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이끌어온 자신의 주체인



生其心'에서 '其心'은 유여열반 아라한이 돈오견성했을 때 나타난 성품을 가리키며, 결국 이 구절은 수행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진아인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당혹스러워할 때 그 성품을 잘 쓰는 법을 일러준 말이다.

13세때부터 수행... '영원한 大自由人' 저술

가이는, 성품이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4상(야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형태로 남아 주체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소멸하는 이치와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성품이 주체가 되어 법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금강경》 법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은 중생의 속성인 무기와 번뇌가 모두 평정된 상태의 가아로서 중생의 가아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금강경》의 유명한 4구제중 한 구절인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

강정진 법사는 일찍이 13세에 수행을 시작해 33세에 수행이 자나깨나 한결같은 경지(寧寂一如)에 이르고, 그 후 12년간 하루에 18시간, 나중에는 20시간 이상 좌선하는 대수행력을 보여 주었으며 마침내 45세 되던 1978년 회두를 타파하고 표충사 내원암 해산(海山)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 《영원한 大自由人》(경서원)을 펴내면서 법기회와 서울대 불교수행모임을 지도하고 있다.

아나합과

무기·번뇌 불망·불매로 평정 세번뇌 극복... 불퇴전의 경지

불환(不還)이라고 번역하는 아나합과(아나합)에 이르면 모든 무기와 번뇌는 수행방편의 불망과 불매로 평정되어 다시는 중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한다. 즉 아나합이 아합로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이다.

사다합과의 세번뇌는 염법상속하는 삼매로 막아낼 수 없다. 오직 의심법(疑頭法)으로 삼매를 고밀도화시키면 삼매관성도 고밀도화되어 갑작스런 경계에 접하더라도 무기에 빠질 틈이 없게 되고, 삼매관성도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세번뇌를 평정하고 아나합과에 도달하게 된다. 아나합과는 비록 중생의 속성인 무기와 번뇌가 모두 수행방편의 불망과 불매로 평정되

었지만 불망과 불매의 대상이 수행방편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아인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므로 수행방편을 밀어 낼 수 있는 극적인 경계가 등장해야만 아나합을 벗어나게 된다.

유여열반

돈오견성...수행자 眞我 드러나 정진 완료, 假我 소멸시켜야

유여열반 아라한은, 아나합이 극적인 경계의 등장으로 수행방편이 문득 밀려나면서 진아가 드러나게된 수행자를 말한다.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극적인 경계가 들어오는 순간인 잘라간이므로 돈오(頓悟, 단박에 깨달는 대라고) 말하며, 성품이 드러난 것을 성품을 본다고 하여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3월-바라밀의 달

- 발보리심
- 발보리심의 단계
- 창조적 자기변화
- 바라밀의 완성

발보리심(發菩提心)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 회원들.

바라밀행의 선행요소

"보리심은 우리 본마음이며 주인공" 욕심버리고 남이해 살기 서원해야

보리심(菩提心)을 발한다는 것은 부처를 이루려는 모든 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이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수행과정인 바라밀(波羅蜜)행의 선행 요소다. 계 정 해 삼학의 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리심 없이 다른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하면서도 보리심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화엄경>에서도 "보리심을 내면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물론 보리심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리심은 세간의 재물이나 명예 등 다른 것들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출발점은 모든 욕망을 버린 것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리심을 내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남을 위해 살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어찌면 보리심을 내는 일은 현대인으로서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세간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보리심을 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따위는 영 멀어보이는 길이나가.

불자약사보리회 유효순 총무(40)의 경우를 보자. 보리심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출세간적인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효순은 지난해 12월부터 생업을 제쳐두고 매일같이 울지 지하상가에서 40명의 불자 약사들과 함께 실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을 해오고 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리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보리심은 우리의 주인공이자 우리의 본 마음이다. 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리심을 하나의 향을 피우더라도 백 명의 중생을 생각하며 피우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보리심 없이는 아무리 수행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명우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극락정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정경(아미타경,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정경(1)(2)·법화경(1)(2)(3)·금강경
(화엄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동원강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1)(2)·화엄경 약한계, 범성계·화엄십지품(1)(2)
최봉수 교수의 근원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법 12 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반야경·법화경·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송찬우 교수	천태소지관·금강경·대승기신론·능엄경(1)(2)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법화경, 법화경, 법화경, 법화경, 법화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경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2월 1일~ 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원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인도티벳어학과 : 2002년 3월 8일(금) 오후 2시

- 4. 입학금 : 입실만원
-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중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li> <li>○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li> <li>○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의식</li> <li>○ 송구...강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일, 돌, 생일 의식과 결혼 의식</li> <li>○ 장례의식(1).....일반의식</li> <li>○ 장례의식(2).....임종, 매장, 화장의식</li> <li>○ 재경의식 및 영혼편도를 위한 천도의의식</li> </ul>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시다합반 30명 (1학기)	•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3월 9일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시다합반)

\*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함)

- 3. 입학금 : 입실만원
-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한글의식교육원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김재일 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2년 3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지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 (반명함판 사진 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02)732-1206-8 FAX(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대중교육도량 동산반야회

불교대중교육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